

“병 속히 고치는데 침뜸 만한 것 없어”

‘전문생’ 양성 놓고 반세기 토론...경국대전에 ‘침구의’ 마침내 성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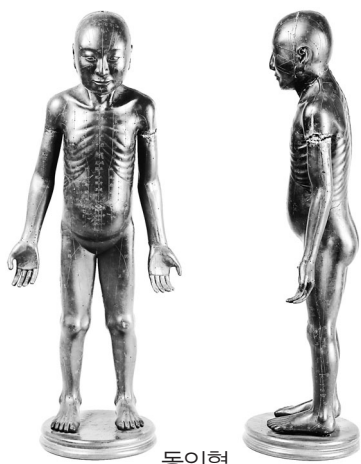
침구전문업종이 창설되어 정착된 과정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다. 필요성은 늘 부각되지만 침구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설치와 폐지를 거듭하는 곡절이 있었다. 이 정책이 제안되어 경국대전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반세기가 가까이 걸렸다. 오랜 논의를 거쳐 침구의제도가 마련된 이후 조선의 침구술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조선에 침구의가 전문업종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초기부터이다. 1433년(세종 15년) 전의감 제조(典醫監 提調)였던 황자후(黃子厚)가 “병을 속히 고치는 데는 침과 뜸만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의원으로서 침 놓고 뜸 뜨는 구명을 밝게 알면, 한 푼의 약도 쓰지 않고도 병을 고칠 것”이라 아뢰며 의학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동인형(銅人形)을 만들어 혈자리를 익히게 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5년 후인 세종 20년에 침구전문업종의 창설

로 이어진다. 그 주요 내용은 매년 침구전문생을 3인씩 채용하여 삼의사(三醫司:내의원, 전의감, 해민국)에 1명씩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4년 후 폐지된다. 단종이 즉위한 1452년 5월에 임원준의 건의에 따라 침구전문법이 부활되지만 세조때 다시 전문별 취재가 폐지된다.

이러한 폐지(廢置)를 거듭하다 1472년(성종 3년) 의학관장(醫學權監) 10조를 정하는 중에 침구의만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시 침구전문법은 별설(別設)되어 삼의사에 다시 침구의가 배치된다.

그리고 성종 16년(1485), 약 1세기에 걸쳐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에 의과취재(의과고시 또는 의과시험)에 침구분야와 약제분야의 취재를 분리한다고 기록하면서 침구를 분리·독립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경국대전에 의과 시험에서 침구에 대한 별도의 과목이 선정되었다.



동인형



경국대전

침구의원 시험과목 일반 의원과 달라

조선의 의학취재는 예조취재 중에 속해 있다. 다른 과거(科擧)와는 별도로 해당 전문분야의 생도(生徒) 전위(前衛) 권지(權知) 등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아 관직을 제수하고, 또 학문을 권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단순히 관직만 제수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 강등, 파출, 전직, 보직 등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의학취재는 의원취재, 침구의취재, 내의원의원시험 등의 3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처음에는 의원취재 뿐이었으나 점차 의료기구가 확대되고 의직(醫職)이 증설됨에 따라 취재도 분야별로 실시하게 된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침구의(鍼灸醫)라는 침구전문의

원의 명칭을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는 일반적으로 침의(鍼醫)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침의들은 약물을 쓰지 않고 주로 침과 뜸으로 병을 치료했다. 특히 각종 부스럼이나 종기 등 외과치료도 침의들의 몫이었다.

• 경국대전 의과취재

과별(科別)	강별(講別)	강 서(講書)
의원 (醫員)	송(誦) [배강(背講)]	찬도맥(纂圖脈) 동인경(銅人經) 50세 이상이면 배강(背講)한다
	임문 (臨文)	창진집(瘡疹集) 직지방(直指方) 구급방(救急方) 부인대전(婦人大全) 득효방(得效方) 화제방(和劑方) 본초(本草) 자생경(資生經) 태산집요(胎產集要)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침구의 (鍼灸醫)	송(誦)	찬도맥(纂圖脈) 화제지남(和劑指南) 동인경(銅人經)
	임문 (臨文)	직지맥(直指脈) 침경지남(針經指南) 자생경(資生經) 자오유주(子午流注) 외과정요(外科精要) 십사경발휘(十四經發揮) 침경적영집(針經摘英集)

■ 침구경험방 간행 배경

침의 전성시대 산물

임진왜란 등으로 백성들 외과 질환 급증

전국 각지 침구의원 병치료 실력 급성장

침뜸의술과 침의(鍼醫)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던 침뜸치료가 임진왜란 이후 왕실에서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반사대부가에서도 침뜸이 더 없이 좋은 치료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침의(鍼醫)들에 대한 위상도 크게 향상됐다.

이처럼 침의와 침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이유는 거듭된 전란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잦은 전란을 치루면서 백성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창상(創傷)이나 종기 등 외과적인 질환이 크게 증가했다. 양반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소외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일반 백성들에게 침과 뜸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실제 생활에서 더욱 빈번하게 쓰이게 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침의의 활동이 전국에서 왕성해지고 그 의술이 깊어진 것이다.

왕실에서도 침구(鍼灸)에 대한 신뢰가 나날이 높아졌다. 병약했던 선조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병이 더욱 깊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광해군 또한 임진왜란 당시 허임과 동행하면서 자주 침구치료를 받았고, 임금으로 등극한 후에도 침구치료를 자주 받았다. 인조 때는 이형익을 비롯한 침의가 임금을 도맡아 치료하게 됐다.

조선 세종 때 도입하기 시작한 침구전문업종제도가 성종 때 완비되어 경국대전에 수록되었고 침의들의 입지가 확고히 구축된 가운데, 전란으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침의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요인이 침구학 발전의 기반이 되어 침구경험방과 같은 훌륭한 저작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 전란 후 이름을 떨친 침의들

백성 속 침구명의 궁궐서 발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침구의가들이 우후순순처럼 나타나 전국 각지에서 침술로 이름을 떨쳤다.

허임과 함께 활동한 박춘무는 임진왜란 시기 가장 먼저 내의원 침의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박춘무는 선조 때 내침의로 임천군수, 수원부사, 인천부사를 지내기도 했다. 경상도 상주의 남영은 허임과 함께 내의원 침의로 선조에게 여러 차례 침구진료에 참여했다. 박인령과 박인전도 일세에 이름을 떨친 형제 침의였다.

1610년(광해군 2년) 12월24일 내의원에서 건의하여 다음해 봄에 임금이 침을 맞도록 하기 위해 내의원에서 삼도(三道)의 관찰사에게 전국의 침의들을 불러 모으도록 명했다. 이에 따라 삼도관찰사는 각각 호남의 금구(金溝: 지금의 김제)에 사는 김영국, 충청도 옥천에 사는 전징, 경상도 거창에 사는 김귀상 등 명침의들에게 말을 지급하여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이들은 모두 내의원 침의로 발탁됐다.

1632년(인조 10년)에는 침술이 정묘하다 하여 이형익이 내의원에 불려와

수차례 왕에게 번침(燔鍼)을 실시하고 의관에 임명되었다. 내침의들은 지방의 침구의원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 내의원 침의로 천거되어 들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백성들 가운데서 병을 치료해 온 침구의원들이 만만치 않은 실력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 각지의 침의들의 활동은 백성들의 실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여 침뜸 전성시대를 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